

그리스에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어느 캄캄한 밤에 맹인이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는 맹인이라 등불이 필요 없지만, 가다가 혹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까 해서 등불을 켜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얼마를 가다가 그만 지나오는 사람하고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맹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눈도 없나? 이 등불이 보이지 않소?" 그러자 저쪽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가진 등불은 꺼진 지 오래됐소"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꺼진 등불을 갖고 있으면 뭘합니까? 등불이 꺼졌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게 맹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른 채 율법을 좇아 의롭게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정죄와 낙심과 절망으로 이끌고 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요 9:41)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비유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바리새인처럼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은 없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보다 탈무드를 더 신봉했습니다. 성경 위에 인간의 사상을 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배경을 율법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은혜의 사실보다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하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고쳤는지? 왜 고쳐주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듯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밝히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구원이란" 문제와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사상과 논리, 더 부연하면 자신들의 지배권과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주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구원의 복음과 십자가의 진리보다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더 크다 보니 더욱더 권위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맹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내 교회와 나 자신의 영적 등불이 꺼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와 생명을 구원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청년부 하계수련회가 24일(목)~26일(토) 연천 신망리제일교회에서 진행 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❷ 8월 중보기도카드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❸ 주보에 성경읽기를 하시고 말씀 기도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식당봉사 - 바나바남전도회

◆ 8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8/5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8/13	광복절기념 연합예배(의정부비전교회)
8/24~26	청년부 하계수련회(연천 신망리제일교회)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강성찬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형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9: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주일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